"비구니 군승파송 '원년'… 인재양성 주력한다"

전국비구니회 임원진 워크숍

종단 사회현안 관련 실무 전문가 특강

'SNS의 세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하반기 연수 주제는 '경율론, 진리의 숲'

"음해부터 외관과는 비구니 군승에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 군포교의 기틀을 세우고 비구니종합도량으로서 비구니회관의 활용도를 높여 비구니 스님의 인재양성을 위한 다변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국 비구니 스님들이 한결같이 함께 나아가는 비구니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4일 서울 강남 전국비구니회 관세사 일대 '2013 전국비구니회 임원진 워크숍'에서 회장 명우스님은 이같이 말했다. 명우스님은 지난 1월 인도 바이살리에서 열린 제13차 사캬디타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석, 전세계 여성불교계 대표들 앞에서 한국 비구니 스님의 위상을 확고히 한 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도 명우스님은 "한국 비구니회 스님들이 한 다리 건너 전세대회서 비구니 군승제도 입법을 위임받아 지난 2011년 11월 이후부터 핵심과제로 내세운 비구니 위상정립 및 사회적 역할 강화, 비구니 인재양성 등과 �थ을 같이 한다.

이번 워크숍도 조계종의 현안과 불교사회적 이슈 등을 주제로 다채롭게 마련했다. 4-5일 1박2일간 열린 워크숍은 첫날 조계종총무원 김영일 사장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단 법인화 시행령을 설명하고, 사찰도서 등기와 관련된 사항법률과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승려복지제도 수행연금에 대한 특강을 했다. 이어 우리종 서울대 교수는 '불교의 눈으로 본 생명의 실'이란 주제로 생명존중과 생명윤리의 차이점과 바톤터의 원뜻, 생명배양 과 방생, 자비 등의 연관성 등으로 강의를 해 스님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동국대 사회학 교수는 '스마트 시대의 불교포교'를 주제로 스님들과 비교적 거리가 먼 SNS의 세계에 관한 흥미로운 강좌를 펼쳤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4~5일 강남 비구니회관에서 임원진 연찬워크숍을 갖고 다양한 강좌를 마련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왼쪽 작은 사진은 회장 명우스님.

이번 워크숍에서 하반기 사업계획을 수립한 전국비구니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비구니회관에서 '경율론, 진리의 숲을 거닐며' 를 주제로 연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주 안심사 주지 일연스님과 김현장사상기대학장 지명스님, 공주 동화사승가대학장 일초스님 등이 (능엄경)과 (대승기신론)'등을 토대로 강의할 예정이다.

최동은 기자 tomas78@bulgyo.com

조계종 의례위 2기 출범

한글천수경 완성 '목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7일 홀리데이 리솜아슬란 컨퍼런 홀에서 열린 의례위 회장단 모임에서 상견 이근희 회장직 잔한날 여서비 빈스톤 조문했다.

조계종 의례위원회 2기가 출범했다. 의례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교육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인묵스님을 초선하고, (법수경) 한글판 작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기 의례위원회는 명월교육도감 화엄스님이 새롭게 참여한다.

의례위원장 인묵스님은 "의례의 시 형식과 한글판는 종단의 과제"임을 강조하며 "사부대중과 출분한 논의를 통해 한글판서 정작과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례위원회는 종단의 의례 이사을 통일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한글판 아침경에 이어, 한글 불정대불정 완성에 공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14개월간의 작업 끝에 한글천수경 초본을 완성해 공개했으며, 최종본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천수경)까지 한글화하면,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불교의식의 한글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현경 기자 ainsatori@bulgyo.com

김일성종합대학에 불교도서 50여종…

번역 경전 30여종 中·韓 찬술 6·9종

이종수 교수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 DB구축 필요성 '제기'

북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종수 동국대불교학술원 교수가 '북한 소재 사찰의 불교문헌' 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분단 후 60년간 접근이 통제돼 상호교류가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된 남북 불교계 상황을 고려할 때 이종수 교수의 이번 발표는 의미 있는 작업이란 평가를 받았다.

북한 최고의 문헌대학으로 꼽히는 김일성종합대학에도 50여종의 불교도서가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1958년도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도서목록)에 근거한 것이다. 이 목록에 따르면 (금강반야바라밀경) (조선한글판성경) (유마경) 등 30종의 여러류파 (묘호법보단경) (대해상선사서) 등 6종의 중국찬술, (선가귀감) (선학입문)등 9종류의 한국찬술 등이 소장되어 있다.

이종수 교수는 "해지면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목록이 북한 소장 불교문헌의 전부라고 생각는 어렵다"면서 "상당수 보현사의 경우 태고 보우의 한국전쟁의 피해를 입었거 때문에 북한은 전적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사원과학원, 월하연구소 등의 인문학 연구기관 귀중도서실에 불교문헌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1940년대 까지 북한지역 사찰이 소장하고 있던 문헌이 대부분 조선총기 원관이나 관련이 있던 원래서 불 때,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해 서지학적 연구년과 뿐 아니라 조선총기 원래유정의 후학들이 있했산과 금강산을 중심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규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이종수 교수는 "북한지역 사찰의 목판 및 관본과 일제강점기에 소장했던 불서목록을 통해 북한에 여전히 다량의 불서가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남북 관동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의 선행 과제로 남측이 구할 수 있는 자료 정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DB) 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 자료 구축에는 북한소재 사찰 재산 목록도 있으므로 정리와 분석을 통해 북한 지역 사찰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동국대불교학술원장 현각스님의 개회사와 동국대정각원장 법타스님의 '북한불교' 기조강연에 이어 스북한의 불교문화와 북한불교의 변모(조성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스북한의 고구려 · 고려사회 - 발굴조사와 연구의 현황(이노우에나오키), 일본고토보부대의 스북한의 불교문화에 관한과 교류협력 과제(강덕, 국립문화재연구소) 스북한 소재 사찰의 불교문헌(종수, 동국대) 스남북한의 불교교류의 성과와 과제(이지범, 고려대불교연구소) 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 고유환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을 한 후 김종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의 폐회사로 학술대회는 끝났다.

이상수 기자 sosiwo@bulgyo.com

우리는 '북한불교' 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동국대 佛文硏, '북한불교의 이해' 세미나

우리는 북한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특히 북한불교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남북통일이 돼야 한다는 명제를 거부하는 이는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불교의 이해' 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과 인문한국연구단은 지난 1일 동국대 문화관 한림세미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불교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종수 동국대불교학술원 교수가 '북한 소재 사찰의 불교문헌' 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분단 후 60년간 접근이 통제돼 상호교류가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된 남북 불교계 상황을 고려할 때 이종수 교수의 이번 발표는 의미 있는 작업이란 평가를 받았다.

북한 최고의 문헌대학으로 꼽히는 김일성종합대학에도 50여종의 불교도서가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1958년도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도서목록)에 근거한 것이다. 이 목록에 따르면 (금강반야바라밀경) (조선한글판성경) (유마경) 등 30종의 여러류파 (묘호법보단경) (대해상선사서) 등 6종의 중국찬술, (선가귀감) (선학입문)등 9종류의 한국찬술 등이 소장되어 있다.

이종수 교수는 "해지면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목록이 북한 소장 불교문헌의 전부라고 생각는 어렵다"면서 "상당수 보현사의 경우 태고 보우의 한국전쟁의 피해를 입 었었기 때문에 북한은 전적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사원과학원, 월하연구소 등의 인문학 연구기관 귀중도서실에 불교문헌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1940년대 까지 북한지역 사찰이 소장하고 있던 문헌이 대부분 조선총기 원관이나 관련이 있던 원래서 불 때,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해 서지학적 연구년과 뿐 아니라 조선총기 원래유정의 후학들이 있했산과 금강산을 중심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규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이종수 교수는 "북한지역 사찰의 목판 및 관본과 일제강점기에 소장했던 불서목록을 통해 북한에 여전히 다량의 불서가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남북 관동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의 선행 과제로 남측이 구할 수 있는 자료 정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DB) 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 자료 구축에는 북한소재 사찰 재산 목록도 있으므로 정리와 분석을 통해 북한 지역 사찰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동국대불교학술원장 현각스님의 개회사와 동국대정각원장 법타스님의 '북한불교' 기조강연에 이어 스북한의 불교문화와 북한불교의 변모(조성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스북한의 고구려 · 고려사회 - 발굴조사와 연구의 현황(이노우에나오키), 일본고토보부대의 스북한의 불교문화에 관한과 교류협력 과제(강덕, 국립문화재연구소) 스북한 소재 사찰의 불교문헌(종수, 동국대) 스남북한의 불교교류의 성과와 과제(이지범, 고려대불교연구소) 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 고유환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을 한 후 김종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의 폐회사로 학술대회는 끝났다.

이상수 기자 sosiwo@bulgyo.com

"화신불 영접 받아 극락정토 왕생"

홍석현 회장 모친상 조문 총무원장 자승스님 '발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홍석현 리솜아슬란 관광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모친이자 상상 이근희 회장의 장모인 김윤남 여사의 빈소를 조문했다.

지난 7일 자승 원장은 상상시설원장 장래시장을 찾은 총무원장 스님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스님, 중앙승가대 총장대행 인산스님, 김동건 불교문화 상임대표, 이재현 불교방송 사장과 함께 예도의 뜻을 전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추모 발원문을 통해 "일생에 사사로움 없이 후덕하고 아랫다운 공덕명을 알 았으니, 화신불이 영접을 받아 극락정토에 왕생할 것"이라며 "이승에 남은 이웃들이 건강하게 뜻대는 일 성취하고 오랫는 깨우침에 이르도록 생전같이 은덕을 베풀어주기" 를 발원했다. 이어 상주인 홍석현 회장을 만나 "생전에 한결같이 수행하신 홍 불한 어른이라 국위영광하셨을 것" 이라며 위로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이날 조문은 유족들과 인연과 종교간 교류 차원에서 비롯됐다. 홍라희 관장은 여성 불자들의 모임인 불이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불이상을 제정해 지난해까지 2기로 등단 불교문 연구와 불교문성화에 기여한 출판기자들을 지원해왔다. 중앙승가대 도서관 건립 등 종단의 각종 불사에 원력을 세워 동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인이 재가 신분으로 지원한 수행을 통해 종사다움 등 칠을 받아 원불교교단장으로 치러지게 따라 종교교류차원에서 종단 대표로 조문했다. 한편, 고(故) 김윤남 여사는 1962년 원불교에 입문해 30년 넘는 신앙활동을 이어왔으며, 지난 1991년 종사가 됐다. 지난 6월9일 오전11시 90세의 일기로 별세했으며, 장례는 원불교 교단장으로 치러졌다.

이현경 기자 ainsatori@bulgyo.com